

경제

2011 새해에는

10이성남 광주지방조달청장

“지역중기 조달시장 참여 적극 지원”



“조달청(공공조달시장) 낙찰은 ‘문이 아니라 전략과 분석의 산물입니다. 계약제도의 변화를 읽고 이를 분석·연구하는 사람에게 낙찰될 가능성성이 높은 거죠.”

이성남(55) 광주지방조달청장은 24일 청장실에서 “광주·전남이 차지하는 경제 비중은 전국의 7%인데 지역 업체가 공공조달시장 입찰에서 낙찰·계약되는 비율은 3.5%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공공조달시장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블루오션’인데 지역 업체들이 이를 외면한 채 민간시장에만 집착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 지난해 정부 지출에 산(293조원)의 25.5%인 75조원이 공공조달시장에 흘렀다”며 “황급 시장인 공공조달시장에 지역 업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부 조달시장에서 낙찰은 ‘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니다”며 “고스트론을 쳤다. 고스트 게임을 보면 매번 때는 일명 ‘선수’가 있다. 선수는 고스톱을 ‘운’으로 치지 않는다. 그만의 노하우(전략)와 판을 읽는 분석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승률이 높다. 공공조달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 청장은 시설부문에서 낙찰률을 높이려면 먼저 분석력이 뛰어난

75조대 황금시장 공략
계약 전문가 육성해야

계약 전문가를 기우라고 조언했다. 계약제도에도 트렌드가 있어 이를 읽지 못하면 낙찰은 불가능하다고 것이다. 계약 트렌드를 연구·분석하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입찰을 주도해야 낙찰률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는 또 물품 구매에서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가격 경쟁이었지만 지금은 품질 경쟁이라는 것이다. 그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지역의 중소기업이 정부조달우수제품 업

체로 선정되면 매출이 최소 2~3배 이상 뛰는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며 “조달우수제품 인증 획득에도 도전하라”고 강조했다.

물품 입찰 방식도 ‘나라장터’(www.g2b.go.kr)로 대변되는 ‘다수공급자제작(MAS·MAS)’ 위주로 전환됐다. 이 제도는 조달청이 여러 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해 물품을 포털사이트 나라장터에 올리면 수요공기관이 나라장터에서 구매 물품을 선택해 직접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이다. 나라장터는 조달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불러왔다.

이 청장은 올해 역점사업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판로를 늘리고, 선금 지급비율을 법정한도까지 최대한 확대해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 활성화를 위해 1조7000억원의 광주지방조달청 예산 중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강진 출신으로 조선대 공업고와 조선대공업전문대학을 졸업했다. 지난 1980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조달청에서 시설계약·공사감리·물품관리·물품구매 업무 등을 두루 거친 조달행정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고, 전북지방조달청장을 역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

지역 백화점 첫 정기세일 “한파가 효자”

겨울 옷·수산물 특수
매출 두자릿수 ‘껑충’

지역 백화점들이 새해 첫 정기세일에서 최대실적을 올리며 한파특수를 뚝뚝히 누렸다. 특히 이번 세일에서는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겨울의 류가 잘 팔렸고 설 대목 수요까지 겹쳐 매출이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24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지역 백화점들이 지난 7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겨울 정기세일 매출이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세일 기간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도포(약 76%), 패딩(약 25%) 등 겨울 의류가 잘 팔리면서 이번 정기세일에서 매출이 약 12% 증가했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17일간 겨울 세일 매출이 지난해 세일과 비교해 매출이 20% 가량 증가했다.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 설 선물세트의 영향으로 수산 약 100%, 농산 약 60%, 축산 약 20%, 공산품 약 18% 등의 매출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수산의 경우 구제역과 조류인 플루엔자(AI) 여파로 생선이 큰 인기를 끌면서 매출이 급증했다.

또 해외명품 브랜드들의 시즌오프(가격인하) 행사가 겹치면서 명품매출도 약 40%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한 국내 입찰이 15조3600억원(94.2%), WTO·정부조달협정에 따른 국제입찰이 9400억원(5.8%)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설 선물세트 수요 증가로 식품군 매출이 41% 가량 증가했으며, 겨울 의류 매출 호조에 힘입어 영패션 의류 37%, 스포츠의류 36%, 잡화 31%, 남성의류 29%, 명품 26%, 여성의류 22% 등 의류부문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본격적인 소비심리 회복세와 한파 덕분에 겨울 의류가 잘 팔리면서 정기 세일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며 “설 선물세트 수요까지 겹치면서 식품군 매출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최강집]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 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 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8:00 (2개월 완성)

9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 사회복지, 농업 및 기술직
강의시간: 08:00 ~ 17:00 (2개월 완성), 매월 평균수반 개강

9급 문제풀이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 사회복지/ 농업 및 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4:00 (4주 완성)

법원/ 검찰직

강의시간: 09:00 ~ 19:20 (2개월 완성)
노량진 유명강사진 출출강!

9급 야간반

강의시간: 19:00 ~ 22:00 (3개월 완성)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공무원 학습 종합반

농업직/ 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5:30 (2개월 완성)
4년 연속 농업직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명품 “강력단과”

영어, 국어, 행정, 행정법, 국어, 한법, 회계학, 경제학, 교육학
강의시간: 15:30 ~ 18:30 (2개월 완성)

한월 소방직 (전문)

시험장과 통일, 체력측정기 도입
강의시간: 08:00 ~ 17:00 (2개월 완성), 매월 평균수반 개강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직영
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개강
매월
1일**

11월 중 건설활동은 건축착공면적이 대폭 증가하면서 전달 -6.0%에서 65.4%로, 건축허가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34.0%에서 114.6%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반면 11월 중 미분양 아파트 수는 광주 수완지구 신규분양으로 인해 전달(4747가구)보다 소폭 증가한 5083가구로 조사됐다.

12월 중 고용은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9500명으로 7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됐으며 제조업 취업자수도 1만1800명으로 전달(7300명)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실업률은 2.5%로 전달(2.1%)보다 소폭 상승했고, 고용률은 58.7%로 전달(59.5%)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전남 경제 성장세 ‘주춤’

제조업 생산 상승 폭 2.1% 그쳐 … 수출은 8.2% 증가

韓銀, 지역경제 동향 발표

가폭이 줄었다.

12월 제조업 업황BSI(기업경기실사지수)도 11월 94에서 85로 크게 하락했다. 광주의 경우 자동차(25.5%), 기계장비(64.9%)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전남은 금속가공(-45.5%), 1차금속(-1.2%), 고무·플라스틱(-2.8%) 등이 부진을 면치 못해 감소폭이 확대됐다.

12월 중 수출은 8.2% 증가하는 데 그쳐 전달(24.4%)보다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2010년 중 광주·전남의 수출액은 420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11월 중 백화점 등 대형 소매점의 판매는 이어갔지만 전남은 금속가공(-45.5%), 1차금속(-1.2%), 고무·플라스틱(-2.8%) 등이 부진을 면치 못해 감소폭이 확대됐다.

12월 중 수출은 8.2% 증가하는 데

여성 맞춤형 고품격 편의사양 … 성능·연비도 ‘굿’

여성 맞춤형 고품격 편의사양 … 성능·연비도 ‘굿’

기아차 ‘모닝’이 이름 빼고 다 바꿔 7년 만에 새롭게 태어났다. 특히 새롭게 바뀐 신형 모닝은 여성 맞춤

적인 ‘여심(女心) 사로잡기’에 나섰다.

기아자동차는 24일 제주도 해비치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서영종 사

장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와 기자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모닝’ 보도발표회를 열고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갔다.

신형 모닝은 2004년 2월 출시된 국내 최초 1000cc 경차 1세대 모닝



기아차는 24일 제주도 해비치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신형 모닝’의 출시 발표회를 열고 올해 22만대 판매를 목표로 본격 시판에 들어갔다.

“올 성장률 5%”

韓銀, 상향 수정 시사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추세치를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우 한은 조사국장은 24일 “올해 실질 GDP 규모가 한은이 추정한 우리 경제의 장기 추세치를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가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던 속도보다 더 빠르게膨창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경제성장이 지난해 ‘정상궤도’에 올라선 데 이어 올해는 추월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로 예정된 한은의 경제성장을 수정전망 발표에서 한은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5% 안팎의 성장을 전망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

30대 그룹 113조 투자

삼성, 현대차, SK, LG 등 국내 30대 그룹이 올해 113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여의도 KTF빌딩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한 가운데 열린 ‘수출·투자·고용 확대를 위한 대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작년 투자실적 100조8000억보다 12.2%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 같은 투자계획에 대해 “내국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4% 초반대로 전망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세계 경제가 회복하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기 이전인 올해 시장 선점을 위한 공격적 투자를 집행해 향후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하겠다는 전략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